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69호 [주제 제26043호] 주제 107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대한 연구토론회

스위스에서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9일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소조책임자 마르틴 뢰체르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이룩한 조선인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고무적기치이라고 하면서 오늘 조선인민은 령도자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모든 분야에 걸쳐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이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며 백승만을 면치고있는것은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인민을 이끌어낸 결실이라고 강조하고 현출위원들의 로적연구보급사업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승리를 담보하는 만년초석 국제사회계가 강조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해나가는 항도적력량으로,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찬하고있다.

영국선진정치연구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어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플스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을 위한 국제친선발기는 성명에서 조선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력량이며 진정한 어머니당인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세계 진보적정당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라고 찬양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당이 가리키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었다. 그 길에서 조선로동당은 이 세상 그 어느 당도 지닐수 없었던 가장 로속하고 세련된 당, 백전백승의 당, 어머니당으로서의 권위를 지니었다. 이는 전적으로 회색의 정치권력으로서 사함과 인력의 최고수준인 김정일동지께서 안아 오신 고귀한 결실이다.

인디아신문 《인디아 엔드 월드 이벤트》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전당의 사상적지적통일과 단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김정일 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의의 혁명사상으로부터 인민을 인격화하도록 하시었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더욱 강력하게 다져지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김정일동지처럼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력들의 당진심에도덕적은 조국과 인민에게 남긴 귀중한 유산이며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열렬한 호모심의 반영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의를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조선로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고 은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

으로 선포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김정일 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의의 혁명사상으로부터 인민을 인격화하도록 하시었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더욱 강력하게 다져지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만마평원대개발전담 중앙위원회 위원인 양근지역위원회 비서는 김정일각하의 당진심에도덕적은 조국과 인민에게 남긴 귀중한 유산이며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열렬한 호모심의 반영이라고 언급하였다.

## 8천만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오늘 우리들은 조국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공격을 과감히 벌여나가고있는 격조적인 시기에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8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지니시었던 애국애민의 통일념원을 실현하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간직하신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도 견줄수 없는 비범출중한 정치실력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회담을 마련하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의 리정요인 판문점선언을 인거주시어 지금 은 거머는 크나큰 감각과 환희로 설레고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북남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온 민족에게 자주통일의 대강을 안겨주시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절제위원들의 애국념원을 받들어 조국당우에 강성변명의 전진기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 력사상 처음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마련하시어 조선반도와 행성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세의 위인상에 접한 전세계인류의 매혹과 찬란, 호모의 열기는 온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장강 반세기를 넘긴 민족분열의 고통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3대원장을 마련하여주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통일유산을 받들어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북남공동선언을 발표하신것은 전세계를 울림이 경탄시키고 민족의 앞길에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열린 민족사적업적으로 오늘도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민족적경지와 자부심에 넘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갈 드높은 열의에 충만되어있습니다.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새 세기 민족의 진군길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리정표가 세워지고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며 온 민족의 통일애국의지가 뜨겁게 분출되어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8천만 겨레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자주통일, 평화변명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겠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제107(2018)년 6월 15일 중국 심양

##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 언제가 솟고 잠관이 뻗어간다

청천강-평남관개물길공사장에서 9월의 대추전망으로 향하는 대진군의 발달소리가 힘차게 울리고있다.

청천강-평남관개물길공사장에서 9월의 대추전망으로 향하는 대진군의 발달소리가 힘차게 울리고있다. 언저리조국에 드리는 자랑찬 로적성취를 마련하려는 불타는 마음을 안고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청천강에 언제를 일떠세우고 흙길에 잠관을 설치하기 위한 공적전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당지근 기공을 일떠세우고있다. 인공들은 여러 작업조를 부어 로적조작을 합리적으로 하는것과 함께 야행형의 지휘관이 되어 전투장을 총괄하면서 공사지휘를 맡고있다. 돌격대원들은 당의 구상을 관철하는 길에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기며 여러 언제기들이 일떠세워지는 청천강의 한복판에 새기기를 쌓아가고있다.

부신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골짜기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 실험에 맞게 찾은 땅속에 솟아오르는 물을 양수기로 퍼내어 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즐거운 공격전을 벌여내었다.

### 세멘트생산성과 계속 확대

#### 부래산세멘트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멘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열매를 열어야 할것이다.》

세차게 뛰어넘고있다. 공장에서는 세멘트생산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원료인 천연석고물 거나 쓰지 않으면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여 많은 실리를 얻고있다.

물 어김없이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소성직장에서는 따라와서 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매일 팔려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언제가 솟고 잠관이 뻗어간다》 《인공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계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기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철의 기상이 힘있게 나뉘고있다. 언제건설을 맡은 평안남도 제1단기건설부대가 부대원수인 김철에게 뛰어넘고있다. 려단에서는 장마철전으로 여러개의 언제기공을 일떠세우며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이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골짜기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 실험에 맞게 찾은 땅속에 솟아오르는 물을 양수기로 퍼내어 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즐거운 공격전을 벌여내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언제기들이 높이 솟아오르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언제기들이 높이 솟아오르고있다. 려단에서는 이 구간에서 공사를 빨리 결속하고 다른 지역에 서의 잠관공사와 견줄수 없을 정도로 진행하기 위한 목표에 면속공적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고 있다.

## 사회주의농촌에 많은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이동식벼종합탈곡기들에 대한 관정사업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촌에 트랙터를 비롯 한 현대적인 농기계를 많이 보내주고 전력과 연유, 박막과 농약같은 영농자재들도 영농경쟁에 맞추어 넉넉히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평양시에 서서 련합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시인의 모든 단위들에서 이동식벼종합탈곡기들에게 집적으로 만들어 보내주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지시사업을 짜고들었다.

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매일 이동식벼종합탈곡기제작과 관련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총괄하고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려일으켰다.

이 사업에서는 선교구역과 동대구역, 시인민위원회, 시지방건설전체관 들수 있게 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선교구역과 동대구역, 시인민위원회, 시지방건설전체관 들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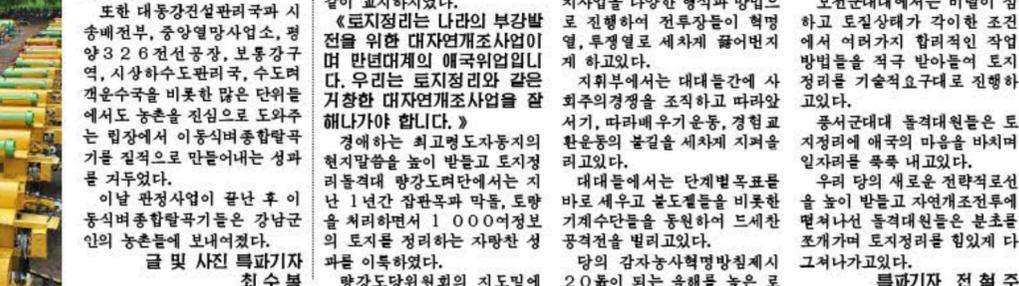
## 토지정리전투에서 련일 혁신

### 토지정리돌격대 량강도려단에서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세상에 불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토지정리돌격대 량강도려단에서 토지정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려단의 인공들과 돌격대원들은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세상에 불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토지정리돌격대 량강도려단에서 토지정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세상에 불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토지정리돌격대 량강도려단에서 토지정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날 관정사업이 끝나고 후 이 이동식벼종합탈곡기들은 량강도 인의 농촌에 보내어졌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조수복









